January 08 시기 이기기, 하나님의 눈으로

• 사무엘상 18:6-17

시기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로, 의분으로, 아첨이나 거짓말로, 악에 받친 모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경쟁과 증오, 뒤틀린 욕구와 탐욕, 냉소와 험담, 혐오와 나태 등의 감정과 죄들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뒤틀리고 비뚤어진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시기는 나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극복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각의 사명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며 만족할 분복이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뒤만 좇느라 나의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삼상 18:9).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내어준 것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마 25:14-30).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나' 자신이면 됩니다. 세상이 매기는 등수가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삼상 18:7). 사탄은 오로지 '1등'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내달렸지만, 결국 파괴된 것은 사울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에 순복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고 섬겼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삼상 22:2, 23장, 24:10).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과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아름다움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❷ 나, 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축복합니까?